

여자 컬링, 일본 쓸고 결승 간다



21일 오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예선 12차전 대한민국과 덴마크의 경기. 한국팀의 김선영이 스위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준결승 격돌…한일전 중압감에 예선전 유일한 패배 “샷에만 집중”

여자컬링 대표팀이 한국 스포츠의 새 역사를 쓰러 가는 길목, 그것도 와나무다리에서 일본과 다시 마주쳤다.

대표팀은 23일 오후 8시 5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준결승전에서 일본과 정면 대결한다.

이 경기에서 이겨야만 대표팀은 대망의 결승에 진출한다.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의 올림픽 컬링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은정 스킵이 이끄는 대표팀과 후지사와 사토카가 이끄는 일본은 예선에서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다. 당시 대표팀은 앞서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에 역전을 당해 5-7로 쓰라린 패배를 당했다.

일본은 예선에서 한국에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팀이다.

한국은 9경기에서 8승 1패를 기록해 예선 1위로 4강에 진출했다. 일본은 5승 4패로 예선 4위를 차지해 4강의 막자를 뒀다.

예선 성적으로는 한국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1패가 한일전에서 나왔다는 점이 신경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대표팀은 차분하게 ‘설욕’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김민정 여자컬링 감독은 “설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1패를 했고, 그게 좋은 악이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선수들은 한일전 패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한일전이니 꼭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서 샷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을 느낀 것이다.

이후 선수들은 ‘내 샷에만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 결과 선수들은 컬링 강국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6연승을 질주, 예선 1위 자리까지 옮겼다.

전체 상대 전적을 봐도 일본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대표팀은 일본 상대 전적이 11승 8패로 앞선다. 이번에도 한일전이라

는 중압감을 버리고 제 실력을 발휘한다면 승산이 크다.

일본도 의욕적으로 준결승에 임하고 있다.

일본은 전날 예선 마지막 두 경기에서 연패를 당해 침통한 표정이었다. 4강에 직행하지 못하고 미국 등과 타이 브레이커 경기를 거쳐야만 4강에 오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스웨덴-미국전에서 스웨덴이 이기면서 미국이 탈락, 행운의 4강 직행권을 차지했다.

후지사와는 극적으로 4강에 안착한 만큼 “우리는 누구보다도 의욕이 넘친다. 한일전이 정말 기대 많이 된다”고 말했다.

양 팀은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감독은 “후지사와팀은 체구는 작지만, 롤백 등 히팅을 잘하는 팀이다. 틈을 주지 말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정확도의 차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영미팀’만 모르는 영미 인기

열성팬 등장·사진 요청 세례 어리둥절…김 감독 “집중력 흐트러질까 걱정”

“몰랐어요” “어리둥절해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스타로 떠오른 여자컬링 대표팀은 자신이 몰고 온 컬링 열풍을 실감하지 못한다.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각오로 휴대전화를 자진 반납해 외부 소식을 차단한 이유가 크다.

선수촌과 경기장만 마다 갔다 하는 선수들은 점점 뜨거워지는 관중 응원 열기와 취재진과 인터뷰 과정에서 인기를 어립진작 할 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예선 마지막 경기인 덴마크전이 열린 21일 강릉컬링센터에는 ‘열성 팬’들이 등장했다.

선수들의 이름을 크게 쓰거나 얼굴을 그린 대형 플래카드를 흔드는 팬들이 수도 없이 발견됐다. 선물을 전달하고, 사

진 요청도 했다. 선수들은 “저요?”라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선수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는 분명하다.

컬링이 이렇게 환대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영미는 “아무리 큰 전국대회가 열려도 관중이 하나도 없는 경기장에서 컬링을 했다”고 말했다.

영화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

여자컬링 대표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스스로 모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다르다.

선수들은 이런 환경 변화에 행여나 마음이 들뜰까 봐 더욱 외부 소식에 귀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커트바 굳히기냐 메드베데바 뒤집기냐

오늘 ‘피겨 여왕’ 탄생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를 이틀 앞둔 23일, 새로운 피겨 여왕이 탄생한다.

리시아가 낳은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19)와 알리나 자카로바(16) 두 ‘피겨 요정’이 하나뿐인 여왕의 자리를 향해 마지막 날갯짓을 한다.

21일 열린 평창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선 ‘동생’ 자카로바가 먼저 웃었다.

자카로바는 82.92점으로 30명의 선수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메드베데바는 81.61점으로 2위에서 자카로바를 바짝 쫓았다. 둘 다 흡족을 데 없는 클린 연기를 펼쳤지만, 자카로바의 기술 점수가 약간 높았다.

둘의 운명은 23일 열리는 프리 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갈린다.

메드베데바는 2014-2015시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와 2015-2016 세계선수권대회를 거두 석권했다. 주니어 대회와 이듬해 시니어 무대를 잇달아 평정한 역사상 첫 여자 선수다. 쇼트프로그램 점수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친 총점 241.31점을 메드베데바가 보유 중인 세계 기록이다.

‘떠오르는 별’ 자카로바는 주니어 시절 총점 200점을 넘긴 첫 선수다. 특히 지난달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총점 238.24점을 받아 메드베데바(232.86점)를 따돌리고 우승해 상승세를 뒀다.

평창올림픽 쇼트에서 기선을 제압한 터라 자카로바가 메드베데바를 또 꺾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자국 국가 대신에 올림픽 오륜기를, 국가 대신 올림픽 친기를 들어야 하는 신세이나 메드베데바와 자카로바는 ‘올림픽 챔피언’이자 ‘피겨퀸’이라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일전을 준비한다.

우리나라 피겨 간판 최다빈(18·수리고)은 아름답고 우아한 연기로 쇼트프로그램 8위를 차지해 24명이 겨루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총점 순위 톱 10 진입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봅슬레이 4인승

메달 향해 출격

연습주행 2위까지 끌어올려

한국 봅슬레이 4인승 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본 경기에 앞선 공식 연습주행을 무난하게 마쳤다.

원윤종(33)-전정린(29-이상 강원도청)-서영우(27-경기BS경기연맹)-김동현(31·강원도청)으로 이뤄진 봅슬레이 4인승 팀은 22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3,4차 공식 연습주행을 소화했다.

전날 1,2차 연습주행에도 참가한 이들은 이튿날 5,6차 연습주행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전체 29개 팀 가운데 1차에는 14위(49점), 2차에는 4위(49점), 3차에는 2위(49점), 4차에는 2위(49점)를 차지했다.

연습주행 결과가 본 경기 순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대체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팀은 금메달을 목표로 도전한 봅슬레이 2인승 경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기에 4인승 경기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원윤종-서영우로 이뤄진 2인승 팀은 지난 18~19일 열린 경기에서 6위에 그쳤다.

4인승 경기는 24일 시작해 폐회식이 열리는 25일 최종 순위가 가려진다.

썰매를 조종하는 역할인 ‘파일럿’ 원윤종은 “마음이 매우 편해졌다”며 “마무리 준비를 잘하고 경기에 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